



2015마을미술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예술마을 아트투어』

I. 아트투어프로그램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고, 2015마을미술프로젝트에서 주관하는 예술마을 현장아트투어는 충북 음성읍을 시작으로 전남 화순, 경북 영천, 부산 사하, 경북 상주, 담양, 안동등을 경유하고 제주도의 서귀포, 강원 정선까지 돌아보는 일정으로 7월 11일 제1차 진행을 시작으로 올해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마을미술프로젝트는 현재까지 전국의 총 76개 지역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중 좋은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아트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마을로 들어간 공공미술의 현장을 둘러보고 마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 학생, 전문가 분들의 색다른 만남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공공미술의 현장 속으로 마을미술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아트투어에 많은 관심과 성원바랍니다.

1. 아트투어 | 일정 및 장소

□ 전체일정

1차 2015. 07. 11(토) - 07. 12(일) <음성-담양-화순-완주>	1박 2일
2차 2015. 07. 24(금) - 07. 26(일) <완주-화순-담양-부산-경주-영천-함창>	2박 3일
3차 2015. 08. 10(월) - 08. 11(화) <함창-영천-부산>	1박 2일
4차 2015. 09. 18(금) - 09. 20(일) <제주-화순-완주>	2박 3일
5차 2015. 10. 24(토) - 10. 25(일) <안동-영천-함창-음성>	1박 2일
6차 2015. 11. 13(금) - 11. 14(토) <영월-정선-원주>	1박 2일

□ 여행대상지

지역	대상지 주소
<강원 정선> 「2013마을미술프로젝트-행복프로젝트」-반월예비친그림바위마을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화암팔경인근)
<강원 영월> 「2010마을미술프로젝트-예술의정원」-아트미로 「2013마을미술프로젝트-기쁨두배프로젝트」 <에코 아트미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506-32번지일원 <구:고씨동굴>
<부산 사하구> 「2009마을미술프로젝트-길섹미술로꾸미기」-꿈을꾸는 마추픽추 「2012마을미술프로젝트-기쁨두배프로젝트」-마추픽추 골목길 프로젝트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감내2로 일원
<제주 서귀포시> 「2012마을미술프로젝트-행복프로젝트」-유토피아로	제주 서귀포시 송산동, 정방동, 천지동 일대

<p align="center"><경북 영천> 「2011마을미술프로젝트-행복프로젝트」- 별별미술마을 신(新)동유도원도 총45점 설치</p>	<p>경북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화산리 및 화남면 귀호리 일대</p>
<p align="center"><전남 화순> 「2011~2013마을미술프로젝트(3회연속당선)」-5일시장과 연계한 성안문화마을 프로젝트</p>	<p>전남 화순군 화순읍 성안마을 (5일시장일대)</p>
<p align="center"><충북 음성> 「2012~2015마을미술프로젝트(2회연속당선)」-동요발상지를 테마로 체험과 어우러진 예술공간 조성</p>	<p>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리 동요학교일원</p>
<p align="center"><경북 상주시 함창읍> 「2014마을미술프로젝트(자유제안)」-'함창예고을-금.상.침.화'를 주제로 총 21점의 작품을 조성한 프로젝트 전 고려가야왕릉과 왕후릉이 조성되었고, 무인역인 함창역, 5일시장등과 상주의 삼백(명주,쌀,곶감)을 스토리텔링으로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p>	<p>경북 상주시 함창읍 함창역일대조성</p>

□ 세부내용

PAX	30명 + 2명(인솔자, 마을미술1명)					
진행차수	1차(7.11-12)	2차(7.24-26)	3차(8.10-11)	4차(9.18-20)	5차(10.24-25)	6차(11.13-14)
참가요금	110,000원	165,600원	102,000원	312,000원	108,600원	미정
※위 참가요금에는 마을미술프로젝트 지원(40%) 요금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CONDITION	
식 사	전 일정 식사
차 량	전 일정 45인승 전용버스
호 텔	호텔급, 리조트, 민박 <현지상황 고려>
현지 가이드	(O) KOREAN SPEAKING GUIDE
▶ 포 함	전 일정 숙박, 전 일정 식사, 전 일정 버스비용, 1억 여행자보험 등 포함
▶ 불포함 사항	개인경비
▶ 입금계좌안내	예금주 : (주) 유앤지투어 은행명 : 국민은행 계좌번호 : 414301-01-054080

- ※ 참가 신청은 30명 마감이며, 선착순으로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참가신청서(첨부파일) 제출 후 참가비 입금 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 참가신청마감 : 참가신청마감은 출발일 기준 일주일전까지 입니다.<제주투어는 2주전까지>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꼭 참고 바랍니다.
- ※ 보내실 곳:



2015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122 동숭아트센터 304호
 www.maeulmisul.org tel : 02-744-9171, fax: 02-322-7155

□ 세부일정표

<별첨 자료 참조>

2. 아트투어 | 대상지 소개

□ 전남 화순



화순, 남산이야기 길은 2011년~2012년 전남 화순군 삼천리621번지 일원에 5일시장과 연계한 프로젝트로 묻고, 듣고, 소통하자라는 컨셉으로 화순남산의 숲길을 따라 역사적 스토리가 담긴 작품과 5일시장의 추억과 향수를 표현한 작품 15점이 설치되어있다. 성안마을 안쪽의 폐가를 활용한 꼬마동물원 조성 등 기존 프로젝트 공간에 인접한 곳과 연계한 작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벨트화 주민 참여프로그램 개발, 5일시장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1년 진행된 시장가는 길 작품은 마을근처 5일시장 주차장입구에 인접한 벽면은 장터에 나온 대 가족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였고, 가족의 따뜻하고 풍요로운 모습을 통해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트타일 및 부조로 제작한 벽화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부산의 마추피추 '감천문화마을'



부산감천동문화마을투어 에서는 부산의 마추픽추라고 불리는 마을로 산자락 아래 계단식으로 형성된 집들이 한 폭의 그

림처럼 펼쳐진 곳을 둘러본다. 감천동 마을은 마을 골목 곳곳에 지역예술가들의 조형작품과 사진갤러리 등 이 있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을 연상케 한다. 좁은 골목길에 알록달록 칠해진 색채와 어우러진 낡은 건물들이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내는 곳이다. 도시개발의 이면에 소외되어 가던 마을이 예술의 힘으로 다시 세워진 곳, 주민공동체가 힘을 모아 스스로를 구원해 나가는 곳, 문화와 예술의 조용하지만 강인한 힘을 느낄 수 있는 감천동문화마을을 따라가 보자.

□ 충북 음성 '동요마을'



충북 음성은 전래동요발상지로 '동요'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적 의미를 고찰하여 2012년에는 "고추먹고 맴맴", 2013년에는 "동요마을이야기" 마을미술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마을을 둘러보면 관객들이 직접 징검다리 형태의 돌길을 건너며 가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작품, 나무의 열매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연주하는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동요의 본 고장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동요마을에서 어렸을 적 불러보던 동요를 부르며 순수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 경북 상주(함창) 함창예고을-'금·상·침·화'



경북 상주시 함창은 지역적으로 과거 6가야 중 하나인 고령가야의 고도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전 고령가야왕릉과 왕후릉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상주는 삼백(명주, 쌀, 곳감)으로 유명한데 그중 함창은 명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옛 고령가야의 전설과 설화, 역사를 되살리고 명주와 비단에 얽힌 생활사를 복원하고자 '함창예고을-금상침화'를 주제로 21점 작품을 미술마을로 도시를 재생시켰다. 금상침화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음을 뜻하는데 비단길에 그림을 더한 함창의 모습을 아트투어를 통해 그 뜻 그대로 느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경북 안동 '길섶 미술로 꾸미기'



경북 안동의 소외지역인 신세동 동부초등학교 주변 및 성진골 일대를 문화유적과 시민들의 공공장소를 매개로 하는 자연스러운 소통의 공간으로 탄생시키고자 '길섹 미술로 꾸미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가장 인상적인 작업은 인물벽화로 뽑히는데 그림 실력을 떠나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다. 구수한 중국집 아저씨, 복덩이 할머니, 손자, 자녀, 마을 멧쟁이 아저씨가 직접 포즈를 취해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벽화 속으로 옮겨 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 강원 정선 <반월에 비친 그림바위마을>



정선 그림바위(畵岩/화암)마을은 화암8경 (화암약수, 거북바위, 용마소, 화암동굴, 화표주, 소금강, 물운대, 광대곡) 과 인접하여 있고 수려한 풍광을 자랑해 왔지만 정작 그 마을은 눈에 띄지 않고 그저 지나치는 곳일 뿐 이었다. 2013정선에서 진행된 행복프로젝트는 과거에 매몰되거나 과거의 일부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이곳' 현재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그 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작가들이 직접 반응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반월에 비친 그림마을은 마을을 이루는 형태가 반달 모양이라는 점에서 지어졌다. 송필 작가의 "빛나는 이야기"외 35명의 작가가 참여 총49점이 설치되어있다. 반월에 비친 그림바위마을의 '세 가지 시선이야기'로 체험투어를 기대해보자.

□ 강원 영월 <에코아트미로>



영월 <아트미로><에코아트미로>는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고씨동굴은 우리나라 대표적 천연동굴로 알려져 있다. 이곳과 근접한 지역에 설치된 아트미로프로젝트는 2010년 구 고씨굴랜드라는 유원지에 방치되어 있던 놀이기구를 재활용하여 독특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프로젝트이다. 자연친화적인 측백나무와 사철나무로 이뤄진 미로의 통로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제작한 대규모 문화공간이다. 이곳과 연계해 조성된 12작품은 스케일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조형이라는 새로운 생명력을 적절하게 부여 넣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각도의 상상과 신기함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 전남 담양 <이야기가 있는 향교리_대나무정원과 미래이야기>



전남 담양 2014년
대나무 고장인 향교리 마을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 조성>
향교리 대나무정원, 담양예술인의 집, 2014



커뮤니티프로그램에서 얻은 결과물을 전시하며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연장되는 공간

=====

2014년 투어이모저모





○2014년 기록

□ 영천 별별미술마을





영천시 별별미술마을과 시안미술관 일대를 둘러보는 모습이다. 영천시청의 담당주무관과 문화관광해설사, 시안미술관의 학예연구사가 곳곳에서 안내와 설명을 해주어 순조롭게 첫 날의 탐방을 마칠 수 있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덜 알려진 곳 이어서 처음에는 다소 낯설어 했지만 고즈넉한 마을이 품고 있는 수준 높은 예술작품들을 확인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다. 특히 영천의 별별미술마을은 일본의 예술섬으로 유명한 나오시마를 연상시키면서도 작품의 수준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 부산 감천문화마을



부산 사하구청에서 기자투어에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었다. 사하구청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과 직원들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감천문화마을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발표를 해주어 감천문화마을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주민들의 상황 등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프리젠테이션 이후에는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후 감천문화마을의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프로젝트스페이스와 작품들을 둘러보는 동안에는 주민분들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오히려 기자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 제주 서귀포시 유토피아로





가장 기대가 컸던 제주 서귀포시 유토피아로 탐방이었다. 투어 당시, 겨울이라는 계절이 무색할 만큼 날씨가 포근하고 화창하여 무거운 취재용 카메라를 짊어진 기자들은 땀을 벗어 허리춤에 걸치고 팔을 걷어 부치고 다녀야했다. 기대만큼 취재열기도 뜨거워, 김해곤 총괄감독님의 작품설명과 현장의 뒷이야기들을 경청하면서 끊임없이 메모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랬던 만큼 투어이후, 기사로 가장 많이 소개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작은 카페를 빌려 간략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마을미술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오가며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다.

=====

□ | 참가자 한마디

김은정(디자인하늘소 대표): 마을미술프로젝트 아트투어는 다른 속도로 걷고, 다른 깊이로 숨을 쉬는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 우리의 일상과 멀지 않은 공간에 예술작품이 스며들어 더욱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다.

성순희(서울예고 교사): 내년 수학여행지는 서귀포 유토피아로 하고 싶다. 그때 김해곤 감독님께서 안내를 맡아 주시면 학생들에게 더없이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 같다.

이승미(인천문화재단 아트플랫폼 관장): 마을미술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훌륭하고 완성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데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도 마을미술프로젝트를 벤치마킹 하고 싶다. 그때 꼭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다.

박옥순(경기대 교수): 나오시마 예술섬에도 여러 번 방문하였지만 결코 그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영천에 조성된 조용하면서 힘 있는 작품들이 인상적이었다.

박윤진(현대자동차 근무): 바쁜 일상에 매몰되었을 때는 결코 알지 못했을 일상 속 예술작품을 접해서 너무 좋았다. 예술작품들 사이를 아이와 손잡고 걸을 때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딱딱한 미술관에서는 접하기 힘든 분위기 인 것 같다.

민병동(2013행복프로젝트 참여 작가): 작가로서 사람들이 작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공공미술을 통해 사람들이 예술작품을 멀고 어렵게만 생각하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다.

특히 민병동 작가는 2013마을미술프로젝트의 공모1.행복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로 이번 투어프로그램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투어에서 '돼지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작가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하여 참가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영천, 부산, 서귀포 등 각 여행지의 곳곳에 돼지모양의 도자기 작품 미니어처를 숨겨놓고 이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돼지를 발견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작품의 일부로 여겨 손을 대지 못하다가 나중에 작가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후부터 모두들 '돼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동이 거듭되는 일정 속에서 하나의 작은 이벤트로서 참가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준 사건이었다.